

## 만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특성 및 부부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 옥 주<sup>†</sup> · 김 정 주  
춘해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 Effects of Parenting Styles of Mothers of Three-Year-old Children Characteristics of Parents on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Kim, Ok Ju<sup>†</sup> · Kim Jung Ju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 Ulsan, Korea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of three-year-old children, and parenting styles of these mothers, and characteristics of parents to analyze relevant variables influencing parenting stress. Data on a total of 1,704 mothers from the 2011 Korean Children Panel Survey of the Child-Care Policy Research Institute were analysed.

First,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of three-year-old childre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arenting style, marital conflict, and husband's cooperation, but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ir marital conflict. Second, the positive parenting style had the greatest effect on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of three-year-old children, followed by marital conflict.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parents' positive parenting style and harmony education and social support for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of three-year-old children.

**Key words:**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characteristics, parents' characteristics

#### I. 서론

핵가족으로 가족의 구조가 변화되면서 현대사회의 부모들은 전통사회의 부모들보다 자녀양육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부모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현대사회의 부모는 과거 부모세대 보다 양육에 대한 부

담이 커졌으며, 책임감 또한 가중되었다(Jang 2012; Kim et al. 2013). 이와 같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의 지원체제가 변화되면서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Yang 2009; Kim 2012).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의 영향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과업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어머니에게 편중되고 있다(An 2011). 이

접수일: 2014년 11월 17일 심사일: 2014년 11월 19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15일

<sup>†</sup>**Corresponding Author:** Kim, Ok Ju Tel: 82-052-270-0244 Fax: 82-052-270-0249

e-mail: okkim0816@ch.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처럼 현실적으로 어머니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 비해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Kim & Song 2007; Seo & Kim 2012).

양육스트레스란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갖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알 수 있는 지표(Lim & Lee 2012)로 자녀양육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Abidin 1990). 일반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 발달특성상 보호와 돌봄의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중된다(Moon 2004). 그러나 생후 3년 이내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부 연구에서 만0세-만2세 사이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나(Choi et al. 2013), 만2세에서 만3세 사이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다(Chang & Fine 2007; Williford et al. 2007). 또한 자녀의 연령이 만3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Lee 2014). 이처럼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 연령에 따라 변화 추이가 일치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거나,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Kim & Moon 2005). 만1세부터 만5세 사이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정/온정적 양육태도의 변화를 살펴본 Kim & Kwak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만3세가 되는 시점부터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감소하는 원인은 어머니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자녀 양육의 모습과 달리 실제로 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의 부정적인 모습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Lee 2014). 더불어 만3세 자녀의 기질적인 요인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Jung 2014). 실제로 어머니는 높은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아주 낮은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Abidin 1990; Kim & Song 2007).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성 및 정서 발달

에 부정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Choi 2002; Han 2008; Kim & Jang 2014). 만3세는 기본생활습관, 도덕성 및 사회성 등이 형성되기 때문에 발달상 중요한 과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감소되는 시점인 만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제일 것이다.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스트레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기초한다.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과 스타일, 자녀에 대한 기대 등의 양육특성이 중요 변인으로 논의된다.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어머니와 자녀양육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Kim 2003). 현대사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양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달 체계가 다양해 졌으나, 자신에게 필요한 양육정보를 결정하고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커졌다(Lee 2009). 어머니는 이상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방향은 알고 있으나, 올바르게 효과적인 양육스타일로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양육스트레스를 겪기도 한다(Kim & Song 2007).

또한 양육스타일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면서 미래에 바람직한 발달을 기대하는 자녀발달기대 정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양육 시 자녀에 대한 기대는 어머니의 신념의 일부로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적 특성과 과정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Park & Won 2003). 부모가 자녀에 대해 부적절한 발달기대를 갖는다면, 자녀발달을 과대평가 하거나 자녀의 요구나 능력을 무시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Grusec & Goodnow 1994). 자녀에 대한 기대는 현실과 이상의 불일치가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Park 2012). 이와 같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양육 현실과의 차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임을 추측해 볼 때, 자녀발달기대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부부특성으로 가족 내 지원, 특히 남편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변인임이 강조되고 있다(Kim & Lee 2005; Lee & Min 2007; An 2011).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아버지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진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덜어주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Choi 2006).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시켜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바탕으로 한다(Jeong 2009).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편의 양육참여와 함께 부부갈등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머니는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만족감이 높을수록(Lee 2004), 반대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im & Lee 2012). 그러므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부부간의 갈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으로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부부갈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특성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환경적인 측면으로 부부특성 변인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학령기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추이를 살펴보거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감소하는 만3세 시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을 살펴보고, 만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국지적인 단위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적인 규모로 만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만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특성 및 부부특

성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부부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만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부부특성은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만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부부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가 2008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이 2011년 실시한 4차년도 최종 공개 자료 중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일부 자료만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이 조사에 포함된 총 패널 수는 만3세 아동이 있는 1,754가구이다. 이 중 어머니가 직접 설문조사를 작성한 1,704가구를 선별하여 최종 1,704명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der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1,704)

	Variable	N	%
Maternal age	30 and less	283	16.6
	Less than 30 to 35	880	51.6
	More than 35	518	30.4
	Missing value	23	1.3
Maternal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517	30.3
	College or less	441	25.9
	More than College	740	43.4
	Missing value	6	0.4

Table 1과 같이, 연구대상 가구의 어머니의 연령은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5세 이상(30.4%)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이상이 43.4%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졸 이하가 25.9%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모든 연구도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에 사용된 연구도구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특성(양육스타일, 자녀미래기대) 및 부부특성(부부갈등, 남편의 양육참여)에 해당하는 각 도구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Kim & Kang(1997)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 등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한국아동패널에서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발췌하여 사용한 도구이다. 양육스트레스 도구의 문항 내용은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응답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 2) 양육특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양육특성을 구성하는 하위변인은 양육스타일과 자녀미래기대이다.

먼저 양육스타일 척도는 Bomstein et al.(1996)의 양육스타일 척도를 수정한 아동패널 검사도구이다. 검사 도구는 긍정적 양육스타일 9문항과 부정적 양육스타일 8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긍정적 양육스타일 문항내용은 ‘나는 내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나는 내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 양육스

타일은 ‘나는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나는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응답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을 의미한다.

자녀미래기대 척도는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2007)가 국제비교연구에서 사용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내용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 등의 6개 문항이다. 이에 대해 ‘매우 원한다.’는 1점으로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4점으로 응답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 3) 부부특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부부특성을 구성하는 하위변인은 부부갈등 및 남편 자녀양육협조이다.

먼저 부부갈등 척도는 Markman et al.(1994)의 부부갈등 척도를 수정한 아동패널검사도구이다. 문항의 내용은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 묻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다.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지금 결혼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등의 8개 문항이다.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응답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양육참여는 Kang(1998)과 Hong(1995)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한 아동패널검사도구이다. 양육의 과정에서 남편이 얼마나 시간과 자원을 들여 양육에 참여하는지 알 수 있는 검사도구로 자세한 질문의 내용은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 한다.’, ‘남편은 아이와 자주 놀아준다.’ 등의 4개 문항이다.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응답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변인별 문항 구성내용 및 신뢰도는 다음 Table 2와 같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1년 6월 13일에서 11월 19일까지 우편조사와 웹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시 조사원이 가구방문에 앞서 각 가구에 우편으로 어머니대상 질문지를 발송한 후 조사원이 가구 방문 일에 수거하는 유치조사방식을 활용하여 수거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연구문제 1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특성 및 부부특성 변인과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로 산출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해서 양육특성 및 부부특성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의 독립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구하여 독립변인들 간

의 다중공산성 여부를 확인 한 결과, VIF값은 1.01~2.23 사이였다. 이상의 모든 자료처리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어머니의 양육특성, 부부특성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특성, 부부특성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는 긍정적 양육스타일( $r=-.55, p<.001$ )과 남편의 양육협조( $r=-.25, p<.001$ )에서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갈등( $r=.42, p<.001$ )과 및 통제적 양육스타일( $r=-.06, p<.05$ )

Table 2. Survey content

Division	Category	Question	Cronbach's $\alpha$
Dependent variables	• Parenting stress	11	.87
Parenting characteristics	• Parental style	Positive	.87
		Control	.78
	• Child's future expectations	6	.71
Couple characteristics	• Marital conflict	8	.91
	• Husband's parenting participation	4	.81

Table 3.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stress

(N=1,704)

		Parenting stress	Parenting characteristics			Parent characteristics	
			Parental Style		Child's future expectations	Marital Conflict	Husband's parenting participation
			Positive	Control			
• Parenting stress		1					
• Parenting characteristics	Parenting style						
	Control	-.55***	1				
	Child's future expectations	.06*	.23***	1			
	Marital conflicts	-.03	.10***	.16***	1		
• Parent characteristics	Husband's parenting participation	.42***	-.30***	-.05***	-.02	1	
		-.25***	.29***	.14***	.07***	-.43***	1

\*  $p < .05$ , \*\*  $p < .01$ , \*\*\*  $p < .001$

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미래기대와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스타일이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할 때, 남편의 자녀에 대한 양육참여가 적다고 인식할 때,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타일이 통제적일수록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특성 및 부부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양육특성, 부부특성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특성, 부부특성의 설명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유의성 검증한 결과  $F$ 값은 199.40로 회귀모형이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beta$ 의 기울기를 통해 알아본 결과, 긍정적 양육스타일( $\beta=-.48, p<.001$ ), 부부갈등( $\beta=.27, p<.001$ ), 통제적 양육스타일( $\beta=.27, p<.01$ )의 순으로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 중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스타일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이었다. 이러한 변인들은 어

니의 양육스트레스 전체에 대해 37%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이 긍정적이지 못할수록,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통제적인 양육스타일 일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만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발달과 양육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특성 및 부부특성 변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만3세 자녀를 둔 어머니 1,70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된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특성 및 부부특성과 양육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육특성 중 긍정적 양육스타일, 남편의 양육협조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부갈등 및 통제적 양육스타일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과 양육스트레스 간에 부적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Luster & Okagaki 1993; Baek 2007)과 일치한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자녀 발달과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부모의

Table 4. Effects parenting and parent characteristics on parenting stress

(N=1,704)

Dependent variables	Predictors	B	$\beta$	t	R <sup>2</sup> Variation	R <sup>2</sup>	F
	(Constant)	47.20					
Parenting stress	Parenting characteristics	• Parenting style	Positive Control	-6.86 .91	-.48 .06	-22.77*** 2.96**	.30 .01
	Parent characteristics	• Child's future expectations		.27	.02	.79	.00
		• Marital Conflict		2.55	.27	12.46***	.06
		Parent characteristics	• Husband parenting participation		.03	.00	.14

\*\*  $p < .01$ , \*\*\*  $p < .001$

양육행동을 규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Jeong(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되지 않는다. 특히, 어머니는 본인 스스로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이 아니라고 인식할수록 양육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즉,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양육스타일을 점검한 후,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실행하고,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 체제가 요구된다.

또한 어머니의 부부특성 중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갈등에서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며, 부부갈등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가사노동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Yu(1998)의 연구,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다는 연구결과(Lee & Min 2007; Lee 2011)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근간에는 부부간의 긍정적인 관계와 부부 간의 협조가 모두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영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어머니들을 기관에 초청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 없이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보다 양육의 근간이 되는 부부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의 형태가 양육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긍정적인 부부관계 설정 및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교육으로 부모교육의 프레임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양육특성 및 부부특성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양육스트레스를 가장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은 양육특성 중 긍정적인 양육스타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부갈등, 통제적 양육스타일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이 긍정적일수록, 부부갈등이 적을수록, 통제적인 양육스타일이 아

닐수록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 양육스트레스임을 보고한 선행연구들(Park 1995; Kim & Moon 2005; Baek 2007; Huth-Bocks & Hughs 2008)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즉, 어머니가 부정적인 양육스타일을 보일수록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부특성에서 부부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로서의 역할만족이 감소시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연구결과(An & Moon 2012)와도 일치한다. 실제로 자녀는 어머니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애착을 형성하고 발달한다. 따라서 어머니가 부정적인 양육스타일을 지닐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욱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어머니의 심리적인 영향이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지원이나 효율적인 양육을 위한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부갈등을 잘 해소하고 부부가 화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가 협력적인 가족지원 체제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에 대한 부모교육이나 부부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특성에서 양육스타일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부부특성에서는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적 상관이, 부부갈등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은 양육특성에서 양육스타일이 부부특성에서 부부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을 가질 수 있는 지원체제가 중요하며, 더불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부부갈등이 감소될 수 있는 부모교육과 상담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체제 조성이 필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자가 선정한 어머니의 양육특성, 부부특성 변인은 자료 분석 방법에 적합한 변인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므로,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모든 변인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정된 양육특성과 부부특성은 연구자 개인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만3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횡단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향후 종단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깊은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s

- Abidin RR(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n SH, Moon HJ(2012) The effect of fathers' daily stress and child-rearing involvement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conflict. *J Korean Home Manag Associ* 30(4), 89-103
- An JJ(2011) The effect of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in early years-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marital relationship, *Korean J Soc Child Welf* 35, 127-158
- Baek YS(2007) The effect stress and guilt of mothers in raising children have in their attitude of raising children. The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 University
- Bornstein MH, Tamis-LeMonda CS, Pascual L, Haynes MO, Painter KM, Galperin CZ, Pecheux MG(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Korean J Behav Dev* 19(2), 347-367
- Chang YF, Fine MA(2007) Modeling parenting stress trajectories among low-income young mothers across the child's second and third years: Factors accounting for stability and change. *Korean J Fam Psychol* 21(4), 584-594
- Choi HS, Eun, Yeon EM, Kwon SJ, Yoon JH(2013) A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maternal perception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 care, value of children,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ress. *Korean J Child Care and Educ Policy* 7(2), 21-45
- Choi SA(2006) Mother's parenting stress analysis. The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 Choi SJ(2002) The study relationship between the methode of mother discipline and infant's sociality development. *Korean J Educ Psychol* 16(3), 197-219
- Grusec JE, Goodnow JJ(1994) The impact of parental discipline methods on the child'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current point of view. *Korean J Dev Psychol* 30, 4-19
- Han TS(2008) The effects of moth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motionality, marital conflicts and parenting-related variables on preschool attachment. The Doctor's Thesis, Kyonggi University
- Hong SR(1995) Studies in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thirties husband's family role performances. The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 Huth-Bocks AC, Hughes HM(2008)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amilies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Korean J Fam Violence* 23(4), 243-251
- Jang YA(2012) The effect of mother and fa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on daily stres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3(2), 163-175
- Joeng JR(2006) Relation between parents' expectation-related variables and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focused on PPC model-. The Doctor's Thesis, Daegu University
- Joeng YJ(2009) The relations among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s adjustment of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The Master's Thesis, Seoul Woman's University
- Jung EH(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marital conflict and paternal involvement of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on mothers childrearing stress. The Master's Thesis, Dongkok University
- Kang HK(1998) 3 parenting stress of professional and white-collar working mothers with children less than age-based: mother tube around the role and support system. The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 Kim KH, Kang HK(1997) Research :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Korean J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5), 141-150
- Kim MS, Moon HJ(2005)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 with young children. *Korean J Home Econ Assoc* 43(8), 25-35
- Kim SJ, Kwak KJ(2013) The influence of mother's affective parenting at 3 years and developmental change of parenting from 3 to 7 years on school adjustment. *Korean J Dev Psychol* 26(2), 1-19



- Kim YJ, Song YS(2007) The relation between a mother's parenting knowledge about infants and parental stress. *Korean J Open Assoc Early Child Educ* 12(4), 475-493
- Kim OJ(2012) Teacher training program model development assisting the performance of duty of beginning teachers in charge of toddler classes. The Doctor's Thesis, Silla University
- Kim YS(2003) An Inquiry into the difference of infants' development related to their mothers; upbringing attitudes. The Master'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 Kim YC, Jang YA(2014) The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Stress on Preschool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in Korea and China.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4(1), 99-118
- Kim J, Lee JH(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Korean J Child Stud* 26(5), 245-261
- Kim JM, Moom SM, Kim YK, An SH(2013)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and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on parenting stress. *Korean J Child Stud* 34(5), 79-98
- Lee SM, Min HY(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mother's child-rearing stress. *Korean J Home Econ Assoc* 16(2), 219-225
- Lee JS(2004) Childrearing involvement, husband-wife relationship and growth as a parent: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Korean J Child Stud* 24(3), 97-106
- Lee JY(2009)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yle of mothers with infants: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Korean J Home Econ Assoc* 47(5), 35-48
- Lee JH(2011) Correlation of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child-rearing stress with infant's initial adaptation to child care center. The Master's Thesis, SamYuk University
- Lee HJ(2014) A longitudinal changes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in low-income families. *Korean J Society Child Welf* 46, 115-147
- Lim HJ, Lee DK(2012) The effect of couples' characteristics, economic characteristics,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infant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for working mothers and homemaker mothers. *Korean J Early Child Educ* 32(5), 451-470
- Luster T, Okagaki L(1993) Multiple influence on parenting: ecological and life-course perspectives. In Luster T, Okagaki L(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Lawrence Erlbaum. pp101-120
- Markman H, Stanley S, Blumberg S(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oon HJ(2004)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Korean J Home Econ Assoc* 42(11), 109-122
-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2007)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5: Survey on children and the family. Saitama, Japan: Author
- Park KA(2012) Effect of infant's temperament and maternal expectation of development for her child on mother's responses in the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infant. The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 Park YY, Won HJ(2003) The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social networks, maternal expectation for their own children and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children. *Korean J Home Econ Assoc* 12(5), 713-735
- Park OI(1995) Research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its related variables. The Doctor's Thesis, Sookmyung Women University
- Seo JH, Kim JK(2012) Th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infancy maternal parenting stress. *Korean J Child Care Educ* 73, 101-121
- Yang JH(2009) Father's participant program at kindergarten: influences on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role performance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Korean J Child Stud* 30(6), 417-442
- Yu WY(1998) The causal relations of maternal parenting related variables effects on infant's social adjustment. The Docto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Willford AP, Calkins SD, Keane SP(2007) Predicting changes in parenting stress across early childhood: Child and maternal factors. *Korean J Abnorm Child Psychol* 35, 251-263